editor. 김규보 photographer. 신규철

자연의 빛 속으로

오색찬란한 강원도 삼척을 여행했다. 여름을 담은 바다, 동굴, 계곡이 푸르게 빛났다.

삼척

풀빛

소한계곡이 여름을 다정하게 맞이한다. 계절의 꽃잎을 터뜨려
넌지시 내보이는 이 길은 다음 계절에도 그만의 향내를 건네겠다.

계절을 품어 내는 소한계곡

다시 맹방해변에 가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들판을 가로지른 다음 초당저수지 길을 따라 이동해 갑봉산 초입에 당도했다. 산맥에 올라타 바다로 전진하던 수림이 계곡 끝자락을 에워싸고 쉬는 곳. 숲이 구슬땀인 듯 습기를 자우룩이 뿌린다. 끈적거리기보다 더위를 식혀 주는 시원스러운 공기다. "계곡물이 차가워 여름에도 선선해요. 소한계곡 물은 연평균 수온이 12도에서 14도 사이로 거의 일정하거든요." 민물김연구센터 김동삼 박사가 소한계곡 탐방에 동행하기로 했다. 민물김은 이름 그대로 민물에서 나는 김이다. 1960년대까지 강원도 몇몇 지역에서 확인했으나 자취를 감췄고, 오늘날엔 소한계곡이 한국에서 유일한 자생지로 알려졌다. 연구센터를 출발해 계곡에 들어섰다. 얼마 전 비가 온 덕분에 계곡물이 콸콸 흘러내린다. 풀빛 흐드러진 계곡 길은 완만하면서 기분 좋게 아담하다. 울창한 나무와 수풀 틈에 노랗고 보란 야생초들이 피었으며 그늘진 자리에는 벤치가 놓였다. 나뭇잎 서걱대는 소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 새가 재잘대는 소리가 연이어 들린다. 줄곧 걷고 있지만 서느런 공기로 호흡하니 더는 땀이 나지 않는다. 벤치에 앉아서 귀를 열자 자연의 안온이 증폭되어 날아든다. 인간이 퍼붓고, 떠밀고, 내쫓으려 애쓰는 동안 소한계곡은 여름을 다정하게 맞이했다. 계절의 꽃잎을 터뜨려 넌지시 내보이는 이 길은 가을과 겨울, 봄에도 그만의 향내를 건네겠다. 계곡 폭이 넓어지는 길목에 안착해 부푸는 내음을 들이마셨다. 가슴에 담기는 여름이 꽃잎을 벌린다. 꽃이 분분한 길, 사람이 선해지는 자연에서 짙고 긴 평안을 얻었다. 아직 더 가야 한다. 휴식을 끝마치고 비탈을 15분가량 걸어 소한굴에 닿았다. 계곡물이 나오는 굴 곁에는 수온을 측정하는 장치가 달렸다.

"민물김이 나는 조건은 까다로워요. 수온, 기온, 조도, 유속, 유량을 포함한 환경조건이 하나만 어긋나도 자라지 못하죠. 매일 아침저녁으로 확인해야 해요." 조심스레 돌을 밟아서 물줄기 가운데로 간 김동삼 박사가 장치를 살피며 말했다. 아무리 늦어도 5월부터 계곡물 속 돌에 붙어 성장하는데, 유난히 가물었던 올해는 여름인 여태껏 민물김을 찾기 힘들다. 가뭄이나 홍수, 폭염이나 한파가 연속되는 이상기후의 원인에 인간의 몫은 얼마나 될까. 인간이 융성하고 생명은 멸종하는 이 시대를 미래는 어떻게 기록할까. 소한계곡에서 민물김이 사라진다면 민물김은 멸종 식물이 된다. 다행히 그는 양식을 시도해 왔다. "2018년 센터에 부임해 열심히 연구했어요. 지난해 양식에 성공했고요. 이제 시작이죠."

● 민물김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생한다고 알려진 소한계곡엔 반딧불이덩굴터널, 전망대, 관찰 덱 등 탐방로가 조성돼 편히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33-570-4426

삼척에서 본 영원한 빛

센터로 돌아와 양식장을 봤다. 계곡물을 흘려보내는 시설에서 민물김이 자라고 있었다. 풀빛에 젖은 물줄기가 윤슬처럼 반짝였다. 그가 민물김 한 장을 내밀었다. 처음엔 고소하다가 씹을수록 감미로워지는 맛. 소한계곡의 분분한 꽃 내음이 떠올랐다. 궁금해서 물었고 그는 대답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 삼척에서 민물김을 연구하겠다 결정했을 때 주변에서 무던히도 만류했다고, 그렇게 힘들어도 값진 일이어서 정말 즐겁다고 말했다. 어느덧 삼척의 일상이 지는 해와 함께 잦아들지만, 내일도 이 땅의 생명들은 뜨겁게 살아 낼 것이다. 오늘이 소중하기에 결국 영원히 빛나게 될 삶을. K